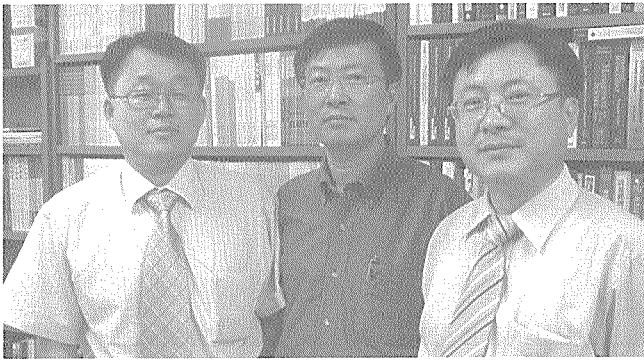


대구, 경북지역 IT리더들이 모였다!

대경 CIO 협의회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산업체, 대학,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IT Leader들의 모임이다. 최신 IT관련 지식과 고급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 산업체의 IT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을 실현해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설립했다. 회원사는 100여 개사로 제조업, 금융·유통·서비스업, 대학, 의료, 공공기관 분과로 구분해서 업종별로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만 제조 간사, 유상진 회장, 이상조 총무.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유상진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상조 삼익THK 이사(총무)와 최영만 금북주 전산실장(제조 간사)으로 부터 대경 CIO 협의회를 조직한 배경과 향후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특정 시점에서의 경쟁력,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특정 기업 자신만의 경쟁력은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연관을 맺고 있는 기업집단 또는 Network 전체의 경쟁력이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S·IT의 기능과 역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유상진 교수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CIO의 역할은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경CIO협의회의 출발은 2002년도 부터다. 그해 4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유상진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으로는 대구은행 박용기 실장, 대구광역시 최창학 정보화 담당관, 경일대학교 이수기 과장, 대구백화점 이상현 실장을 선임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회원사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IT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회원사들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고민한 후에 테마를 정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광주지역 CIO포럼(최상기 회장, (주)캐리어 CIO)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상진 회장은 유능한 CIO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Staff의 역할에 머물지 말고, Line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IS/IT의 기능을 생산성이나 효율성에만 맞추지 말고, 경쟁력과 효과성에 맞추어야 함을 의미하죠. 또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Best Practice를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대경 CIO협의회는 걸음마 단계를 넘었다.

“회원 상호간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친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단순히 친목을 위한 장이 아니라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IS/IT관련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IT가 중요한 요소라고 기업의 정보담당자들은 입을 모은다. 문제는 투자비용이다. 대

경 CIO 협의회는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IT부서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대구 및 경상북도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는 IT 리더이다. **Users**

